

防産業體 慰勞 '87 晚餐 개최



▲ '87 만찬 광경 (右: 鄭鎬溶 장관, 左: 柳繼佑 회장)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를 위한 만찬이 國防部長官 主宰로 12월 9일 육군회관에서 방산업체 대표 및 관련기관 관계관 1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한 해의 勞苦를 致賀하고 위로 및 격려를 위해 개최된 이번 만찬에서, 鄭鎬溶 國防부장관은 致辭를 통해 自主國防力量 배양에 헌신적인 노력을 傾注한 업체 대표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固有의 상품을 개발·생산하여 稼動率을 提高하는 등 自救策을 講究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기업의 내실화를 다짐으로써, 새로운 跳躍의 契機가 마련될 것』임을 역설했다.

또한 외국의 완성장비 획득에서 국내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國內所要를 創出할 것과 정부차원의 軍事外交 강화와 병행하여, 民間主導 해외협력 확대로 防産輸出 增大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答辭에서 본 회 柳繼佑 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새해에도 더욱 분발하여 안으로 기술축적과 경영의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對北傀 絶대우위의 自主國防力 확보에 忠력을 傾注하기 위해 기초연구 강화와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확대에 더

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새해를 맞는 防産業界의 姿勢를 밝혔다.

이어 『방산관계자 모두는 사업장과 단체에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우리의 절실한 安保狀況을 理解시킴은 물론, 70년대초 어려운 여건하에서 방위산업을 胎動시켰던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그 중요성을 再認識할 것을 促求하며, 이제까지 온 국민이 땀흘려 쌓아올린 安定과 成長의 土臺위에서 民主發展과 民族繁榮의 새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中斷없는 前進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韓國·오레곤 방산위원회 설립 調印

韓·오레곤 방산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調印式이 12월 21일 본 회 柳俊馨 상근부회장과 美 방위준비협회 Ken E. Beckerich 오레곤支部長 사이에 거행되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美 오레곤주 포랜드市에서 개최된 韓美 방산협력회의에 따라 갖게된 이번 調印式으로, 韓美間 방산협력 확대



▲ 調印書를 교환하는 兩側 공동의장

에 새로운 轉機가 마련되었으며, 공동이익 추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조인된 韓·오레곤 防産委員會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韓·오레곤 방산위원회 운영방침

1. 양측은 1987년 11월 9일~12일간 미국 오레곤주 포트랜드시에서 개최된 한·오레곤 防産 協力會議를 통하여 교양된 협력분위기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방위준비협회 오레곤支部 間に 韓·오레곤 防産委員會를 設立하기로 합의한다.
2. 한·오레곤 방산위원회의 共同議長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미국 방위준비협회 오레곤지부장으로 한다. 공동의장은 양측에 3~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3. 한·오레곤 방산위원회의 機能과 活動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미국방위준비협회 오레곤지부 회원들에게 한국의 방위산업과 방위산업 관련회사를 소개하고, 미국방위준비협회 오레곤지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오레곤州의 방위산업과 방위산업 관련회사를 소개한다. 특히 태평양연안 국가인 한국과 미국의 방위산업체간에 접촉과 대화를 더욱 더 확대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측은 상호 투자, 기술협력, 하청계약 및 합작 투자와 같은 協力事業機會를 追求하는 이 지역내의 회사들을 위한 接觸窓口 역할을 한다.
 - 나. 양측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同會議의 토의할 주제는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오레곤 방산위원회는 '88 한·오레곤 방산협력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 다. 양측은 방산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교환한다.
 - 라. 양측은 세미나와 강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방산분야의 專門인 識見을 갖고 있는 演士나 패널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 마. 양측은 양국 정부가 민간분야의 방산협력에 부과하고 있는 制約을 除去하거나 緩和하기 위하여 共同努力을 한다.
4. 한·오레곤 방산위원회는 어느 一方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체된다.

柳 俊 馨	Ken E. Beckerich
한국방위산업진흥회	美國 防衛準備協會
상근부회장	오레곤 지부장

TOR for Korea-Oregon Defense Industry Committee

1. Both sides agree to set up Korea-Oregon Defense Industry Committee (KODIC) between KDIA and the Oregon Chapter of ADPA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cooperative atmosphere enhanced through Korea-Oregon Defense Industry Conference which was held during 9 Nov-12 Nov, 1987 in Portland, Oregon, United States.
2. The KODIC is co-chaired by the executive chairman of KDIA and the president of the Oregon Chapter of ADPA. The co-chairman is to designate 3-5 committee members for each side.
3. Functions & activities of KODIC are as follows:
 - A. KDIA is to introduc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defense industry related firms to the Oregon chapter of ADPA, while the Oregon chapter of ADPA is to introduce Oregon defense industry and defense industry related firms to KDIA. Particularl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urther expansion of contacts and dialog between ROK and US defense industries in the Pacific Rim, both sides assume the role of a contact window for the firms in this region seeking cooperative business opportunities such as reciprocal procurements, investments, technological collaborations, subcontracting and other joint ventures.
 - B. Both sides will have a periodical meeting annually, of which topics to be discussed are to be agreed in advance. And KODIC will exchange views continually on the necessity of the next Korea-Oregon Defense Cooperation Conference of 1988.
 - C. Both sides are to exchange information materials helpful to the economical cooperation including those of defense industries.
 - D. Both sides will actively seek exchange of speakers and panelists who have expertise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so as to exchange views continually through seminars and lectures.
 - E. Both sides are to make common efforts to remove or alleviate the existing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imposed by both governments on the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tor of two countries.
4. KODIC shall be disorganized in case that either party so requests.

	
MG Lee, Joon Young (Ret.) Executive Chairman Korea Defense Industry Asso.	Ken E. Beckerich President, Oregon Chapter American Defense Preparedness Asso.